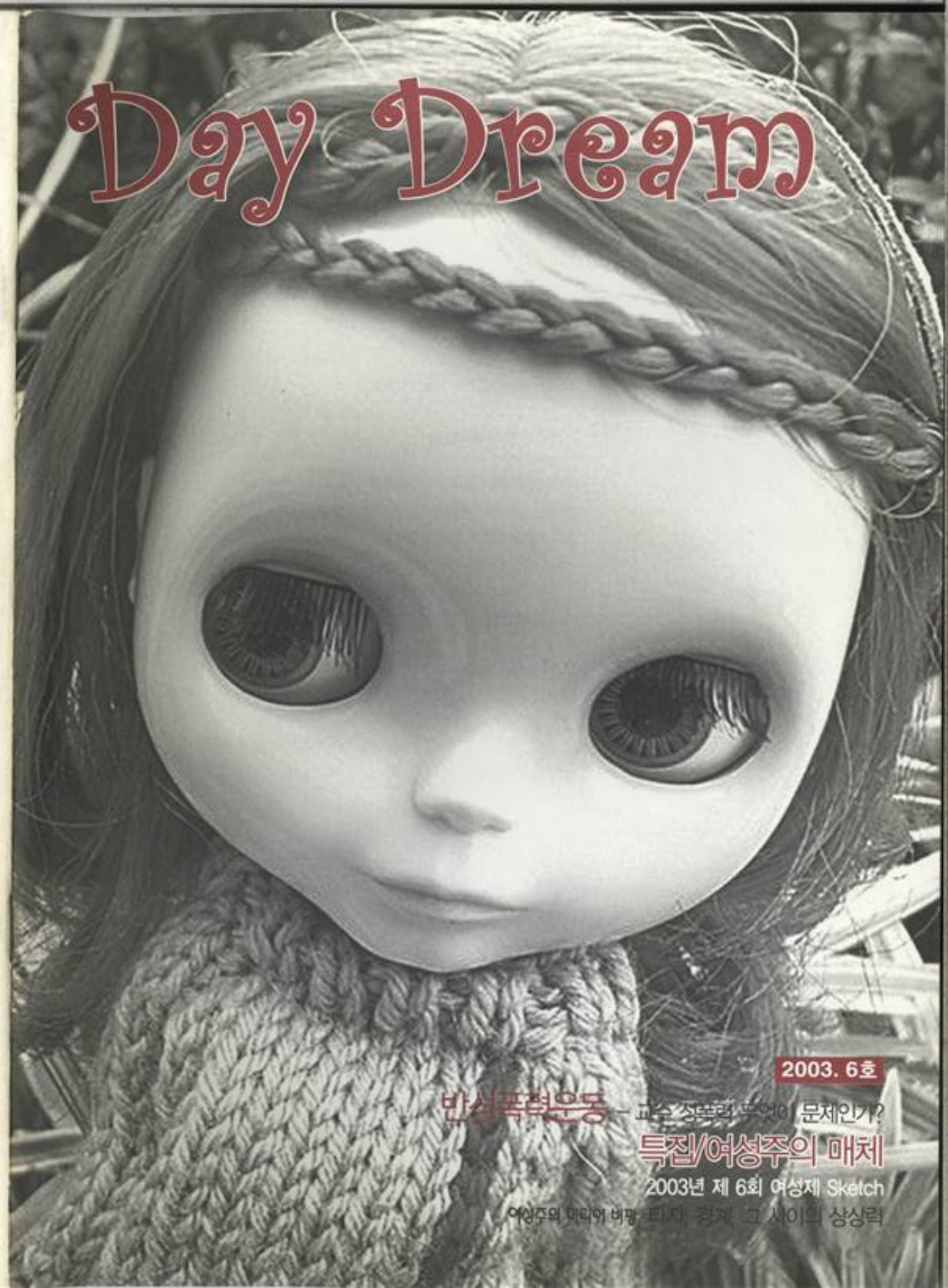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Day Dream



2003. 6호

반성폭력운동 - 교수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특집/여성주의 매체

2003년 제 6회 여성제 Sketch

여성주의 미디어 바람, 파도, 경계 그 사이의 상상력

CONTENTS

01 기획 I | 2003년 총여 24시

2003년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돌아보며 • 2

05 기획 II | 반성폭력운동

2003년 총여학생회의 반성폭력 흐름 만들기 • 6

2003년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를 돌아보다 • 9

교수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 11

- 교수 성폭력, 어떤 일이 있었나? • 17

-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가)를 제안합니다 • 18

- 성폭력 가해 교수 징계 재심의 문제에 대한 성명서 • 20

23 특집 | 여성주의 매체

데이드림 1호부터 5호까지 총정리!! • 24

그 여자가 말한다. 그 여자가 글쓴다. - 여성주의자치언론에 관해 • 27

다른 여성주의 매체 알아보기 • 30



34 2003년 제 6회 여성제 Sketch

36 여성주의 미디어 비평 | 타자, 경계, 그 사이의 상상력

38 이걸의 우리 모두 알아야 할 반성폭력 이야기 | 성폭력, 우리 모두의 문제

40 남성이 바라 본 세상 | 포르노에 리플을!

기획1

2003년
총여 24시



2003 총여학생회의 역할과 활동을 돌아보며



2003년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돌아보며

내게 성폭력 사건이란..

총여학생회를 시작하면서 막연하게 예감하고 있었다. 올해도 많은 성폭력 사건을 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성폭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나름대로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는 더 많이 힘들었다...

총여학생회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혹은 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은 총여학생회나 다른 학생회가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활동을 한다. 여타 다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 성폭력 상담소나 학내 성폭력 상담실에게 요청을 하고, 사건을 그 쪽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원칙'은 있되, 그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지도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원칙'이라는 것까지도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더 어려웠다. 사건을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피해자가 없어져버리는 상황도 경계해야 했지만, 피해자와의 심리적 동시성 상태로 함께 괴로워만 하는 상황은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다. 자신은 그러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님을 강변하다가, 그런 적이 '없다'로 결론을 짓는 가해자들의 변한 스토리들을 끝없이 듣는 일도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피해자를 만나는 일은 다른 의미에서 더욱 괴로운 일이다. 사건주체로서 이름짓기

에 나의 위치는 언제나 불안정하게만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받은 '피해'를 남에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듣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더 큰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감수하고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을 해결 하고자 찾아온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기울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기도 하다.

여성주의자, 중앙운영위원회 가다.

총여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위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중운위 회의에 참석해야만 한다. 중운위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되어 있다. 여학생들의 대표체로서 중운위에 참석하지만, 여성주의자로서 나에게 그 자리는 어딘지 석연찮은 공간이다. 학내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고, 모두가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지만 '여성주의자'인 나는 어딘지 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총여학생회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번번이 '총여학생회만의 것'이 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회의를 하였다. 여성의 문제는 주변적이고 사소한 문제가 되는 것을 이 곳에서도 막기 어려웠다. 성폭력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더 중



요한 일이 많다고 선을 그어버리는 다른 학생회와 함께 중운위원으로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총여학생회가 이 곳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 괜히 시간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까지 하였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은 것은 어떻게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에서였고, 학교와의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질서에서 고립되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다른 학생회와의 관계맺기는 어렵기만 하다.

어떠한 맥락에서든, 대표자와 일반학우를 나누어놓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학생들이 '뭇뻥' 모였는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까지 그렇게 판단하는 모습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자신의 생각이든 활동이든 그것에 정당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자신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며, 그것을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주장의 정당함은 단지 그 것에 동의하는 사람의 '숫자'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숫자를 강조하였을 경우 사람이 많이 동의할 만한 것들만 하게 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된다. 인권 문제가 다수결이 아니듯, 다수가 원한다고 모두 '선'은 아니며 다수가 원하지 않더라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미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왠지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총여학생회에 비상이 걸렸다. 홈페이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1, 2월쯤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겨울이 활하고, 새터 내규 개정과 성폭력 예방 교양, 여학생 수첩

제작, 데이트림 발행 등의 일을 하다보니 그 길던 겨울 방학도 끝나 버린 것이다.

학생회 예산 절약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로 결정 했는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전문적인 홈페이지 제작 교육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고,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차악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좀 떨어지는 홈페이지 제작 기술이나 감각 보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현실적인 위기 상황이었다. 처음 만드는 거라서 사소한 것들에서 시행착오가 많았고 그 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밤샘 작업이었다. 구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지 않고 무작정 페이지 제작에 들어가다 보니 일이 조금 진행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결국 그전까지 만든 것들을 전부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눈물나는 며칠간이 전진 없는 단순 반복 작업 속에서 웬지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홈페이지가 탄생하였다. 그래도 개강 전에 완성을 보았고, 아마추어리즘의 승리라고 자위하면서, 그래도 돈은 안들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았다. 하지만 업데이트는 수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좀처럼 구성을 바꾸기가 어려운 홈페이지가 되어버렸다. 관리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그리 친절해보이지 않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홈페이지 제작에는 오랜 시간의 기획과 콘텐츠 구상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고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몇십만원 혹은 백만원이상이 들어가는 거겠지.. 그런데 여름 방학 때쯤 다른 대학교의 학생회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문의하는 연락이 왔다. 총여학생회 홈페이지를 어디서 만들었냐고 물어와서, 직접 만들었다고 대답하니, 좀 만들어줄 수 없겠냐고 물어왔다. 제작비용을 지불



2003년

하겠다는 홈페이지 제작 제의였지만, 기분 좋게 거절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설피고 제작 기술도 떨어집니다. 다른 전문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www.yonsei.ac.kr/~ysfem 총여학생회 홈페이지의 진화를 기대한다.

저 사람 누구냐?

총여학생회실에는 정말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라크전이 발발하고 총여학생회에서는 전쟁반대 활동을 진행하였다.

어느 날 주말 반전 집회 준비로 피켓 제작에 바쁜 총여실에 나이 좀 들어 보이는 성인 남성 몇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낯선 사람들의 갑작스런 출입. 하지만 이 사람들은 왜 총여실에 왔는지, 자신이 누군지 전혀 설명도 하지 않고, 총여실을 둘러보고는 졸업생이라고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얼떨결에 이 사람과 악수를 하였고, 이 사람은 악수를 끝내고 나서 너무도 당당하게 총여실을 나갔다. 총여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하고 갔을까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누군가가 이 사람의 양복 주머니에 붙어있는 반짝이는 팻지를 지적했다. 그리고 함께 들어왔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시듯이 한 걸로 보아, 뭔가 있는 사람임에는 분명했다. 결국 이 사람이 우리 학교 출신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왜 총여실에 왔으며, 왜 악수를 했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아주 짧은 봄날 한 조각

그 날의 날씨를 떠올리면... 정말 온갖 상투적인 표현밖에

할 수가 없다.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란 하늘, 감히 올려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햇살, 포근함과 선선함을 적절하게 유지한 채 불어오는 포근한 바람... 며칠째 그따위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고 개강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날의 백양로에는 새학기 특유의 살짝 들뜬 분위기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래, 봄이었다. 그야말로 '봄'이었다. 그/러/나, 만물이 소생한다는 그 아름다운 봄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러고 살았을까 싶어 피식 헛웃음이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들은 전혀 '봄스럽지' 못했다. 도대체 2003년 3월에는 왜 그렇게 정신이 없었으며 왜 그렇게 바빴으며 왜 그렇게 할일이 많았을까. 그야말로 '일에 치여'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나서 또다시 업무-_-에 돌입하려는 찰나, 누군가의 입에서 "우리 광합성 좀 하고 오자..."라는 말이 스르르 흘러나왔다. 광합성! 광합성! 광합성이라니!! 이 얼마나 천자연적인 말이던가!! 우리는 절대적인 햇빛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당시 휴학 상태였는데, 아침 여덟시 전에 학교에 출근(?)하여 밤 열시에 퇴근(-_-)할 때까지 학생회관 바깥을 한번도 벗어나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2~3일 정도였었으며, 다른 친구들 역시 나와 비슷한 상태였다. 우리는 총여실이 있는 학관 3층에서 내려와 하얀샘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서 들고는 말없이 백양로를 걸었다. 날씨는 역시나 화려찬란. 그 시간에 햇빛 아래서 걷고 있다는 사실이 어색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리고 우리는 삼거리가 갈라지는 계단-_-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북적거리는 백양로의 활기찬 모습을 보니 왠지 눈물이 핑 돌았다.

처절했던 3월, 그 짧은 한 조각의 봄날. 지쳐있던 우리가 스스로에게 허락해 준 아주 잠시의 눈물나는 '여유'. 지금도, 나는 그 날을 떠올릴 때마다 괜히 마음이 짝해지곤 한다.

기획2

반성폭력운동



2003년 총여학생회의 반성폭력 흐름 만들기
2003년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를 돌아보다
교수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2003년 총여학생회의 반성폭력 흐름 만들기

중 여학생회의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아님 '반성폭력 운동'이다. 학내 성폭력이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해왔고,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이라는 공간을 성폭력 안전지대로 여기는 분위기는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지성인'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거짓된 믿음 때문에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은 더욱 은폐되기 쉽다.

대학 내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한다는 것은 대학 내 구성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학교당국이 책임 있게 성폭력 사건을 맡아서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총여학생회에서 2003년도 해왔던 반성폭력운동은 '새내기 새로 배움터 반성폭력 자치규약'(이하 새터내규)의 개정에서부터 시작한다. 2000년도에 제정된 자치규약의 불명확한 내용을 정리하고, 사례들을 2000년도 이후의 것들로 바꾸었다. 그리고 연세성폭력뿌리뽑기 연대회의에서 함께 새터내규 홍보 작업과 단과대, 과·반 학생회의 반성폭력 교양을 하였다. 성폭력에 대

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바꾸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자치규약은 의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터내규가 시행 된지 4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성폭력에 대한 집단적인 인지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 보다는, 내규 자체를 회화화하는 일이 빈번하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치규약을 '즐겁게 노는 데 방해가 되는 무언가'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새터 내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은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성폭력 새터 내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성폭력 예방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새터 내규를 보고 해결에 의지를 갖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성폭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불쾌함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사람들에게 지지가 될 수 있다.

이후 단대별 자치규약 제정을 위한 모임을 진행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이는 단대학생회의 역량 문제일 수도 있고, 이미 대학사회가 과?반 학생회의 테두리를 벗어난 학생들이 많다

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다. 자치규약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5월에는 '교수성폭력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에 대해서 신고를 한 달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는 수업시간에 성폭력적인 발언이 '농담'이나 수업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그리고 현재 더 이상 그러한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남성중심적인 교수 문화가 빈번히 크게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를 통해서 크게 '사소한' 보이는 발언들 - 언어적 성폭력 - 이 어떻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것과 '교수'에 의한 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수업 중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어떠한 방

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제까지 존재했었지만 수면위로 드러난 문제 제기가 없었던 수업 중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켰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책임지고 해야만 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 이후 후속작업으로 신고를 계속 받고 있으며, 토론회에서 진행된 이야기를 정리하여 미약하지만 성폭력 예방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교의 교수님들에게 자료집을 발송하였다.

9월에는 '반성폭력 학칙'(이하 학칙)의 운영 개선과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학칙이 제정된 지 3년이 넘어서야 학칙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은, 학칙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학칙이 제정되었다는 것과 학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학칙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



대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03년, 학칙 재정 이후 가장 많은 성폭력 사건이 신고 되어 처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많은 문제들이 속속히 드러나게 되었다. 성폭력 사건을 의결하고 처리하는 실질적인 주체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이 없음이 드러났고,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와 가해자가 처벌받기란 또 얼마나 소원한 일인지 드러났다.

학교가 학생들의 성폭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권을 보장해야함은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칙의 빈자리를 메꾸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학내 성폭력의 또 다른 부분은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행해진다.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엿듣거나 하는 일은 최근까지도 신고 되고 있다. 기숙사의 여학생층에 들어가서 샤워실을 엿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이 끊이

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대강당에 우선적으로 '여자 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숙사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단과대 건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늦은 밤 백양로나 기숙사 가는 길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예방으로 비상전화 설치가 시급하다.

학내 깊숙이 존재하고 있는 성폭력들은 깊고도 다양하다. 이들을 '성폭력'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기에도 어려울 정도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이러한 '성폭력'들이 성별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여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여학생회의 1년 활동으로 모든 성폭력이 근절될 수는 없으나, 학내 다양한 성폭력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문제제기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반성폭력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를 돌아보다

2003년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이하 연성뿌연)은 2002년도의 활동을 이어서 학내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다. 총여학생회의 제안으로 꾸려진 이 모임은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 자치단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연성뿌연은 새터내규의 홍보와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통해서 학내의 성폭력적인 문화를 지적하고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마초맨 반대 서명과 단대별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을 해나갔다. 연성뿌연의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9월에 있었던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 운영개선을 위한 공청회도 연성뿌연 모임에 참여하였던 단위들이 함께 기획하여 준비하였던 행사이다.

연성뿌연의 존재 자체와 활동이 의미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모든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어찌보면 단순한 이 명제에 동의하는 학내단위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는 데에 있고, 단위 학생들이 학내 성폭력 문제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성뿌연은 1년 내 난항을 겪어 오다가 이

제는 존재를 찾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연성뿌연 초반 거의 모든 학생회가 참여했던 모임이 새터가 끝나고, 학기가 시작됨과 함께 총여학생회와 몇 개의 단과대만 남고 다 사라져버렸다. 이는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단과대 학생회가 없다는 이유였고, 여성국이 존재하는 단과대학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단위 학생회들은 아직도 성폭력 문제는 '총여학생회'의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학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학생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하는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학생회는 마땅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여성주의 총여학생회에서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총여학생회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학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학교당국에 있다. 학생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위협당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권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생들



※ 지난 9월 18일 제정된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 결실을 위한 공청회 때 발표된 글을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교수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1. '교수 성폭력'을 만나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수십 개의 대학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성폭력 사건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으로써 교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¹⁾ 교수 성폭력 사건은 대학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 대학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수 성폭력은 교수-학생간의 위계적인 권력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사회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수 성폭력은 전혀 문제시되거나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사회에는 교수 성폭력을 둘러싼 침묵의 고리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대다수의 교수들과 학교 행정가들에게 교수 성폭력은 몇몇 '문제 있는' 교수들의 개인적인 잘못 혹은 실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를 어렵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철저히 배제되는 상황으로 만든다. 교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학교와 교수 집단이 오히려 성폭력 사건 방조와 은폐,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 부정 및 2차 가해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교수 성폭력의 현재 상황이다.

2. 교수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교수 성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사회의 구조와 그 모습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교수는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담

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반성폭력 학칙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학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데에 급급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학생회라는 이름을 가진 집단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각기 다른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사실 드러내고 우리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밝히는 학생회는 없을 것이다. 단지 '역량이 부족하다' '인자가 없다'는 말로 되풀이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이 말은 학생회를 꾸리고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성폭력은 부차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에 의도하지 않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

15대 총학생회가 연성부연을 책임 있게 끝까지 꾸려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을 느낀다. 그리고 앞으로 성폭력 문제를 주변적인 것으로 여기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다른 학생회와 어떻게 소통해나갈 것인지 역시 깊은 물음으로 남는다.

나는 모든
성폭력
반대한다

1) 2000년 이후 발생해서 언론에 알려진 교수 성폭력 사건을 알아본다. 동국대 7교수, 서강대 7교수, 서경대 8교수, 서울대 6교수, 서울대병원 9교수, 연세대 7교수, 경북대 9교수, 경북대 9교수, 경원대 7교수 등은 교수 지위를 이용해서 논문지도를 위한 대학원생, 학과 학부생 등에게 성폭력 가해를 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대학내 성폭력 성실통계를 보면 75건의 상담 사건 중에 24건이 교수-학생 간의 성폭력 사건이었다(71건 97.1 ~ 98.6).

■ 사건 처리

교수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징계권자인 학교 당국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고 학교로 신고되더라도 학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 하기보다는 학교의 명예나 가해 교수를 먼저 생각한다.¹⁾ 그리고 징계를 논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 교수들이고 사건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인 학생측의 입장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 학교 당국과 교수들은 교수 성폭력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대학에서 교수 지위가 이용되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사소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교수 성폭력을 대학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교수 개인의 잘못에만 초점이 맞춰진다. 교수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일반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학교와 가해자를 포함한 교수사회 전체와 싸워나가야 한다. 학교와 교수사회 모두가 가해자를 감싸주는 풍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수의 처벌은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1) 서울산업대 교수 사건은 피해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가해자보호'가 이루어지는 지금의 현실을 참담하게 보여준다. 여학생들에게 언어적 성폭력을 가해 물의를 일으킨 교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은 학교는, 가해자를 비탄해온 학생들 중 무려 90명에게 수업권 방해로 이유로 제적, 무기정학, 유기정학의 징계를 가했다. 가해자의 교수지위는 보호해줄면서 피해자의 학생지위는 너무나도 쉽게 박탈해버린 것이다. 이는 결국 무당한 폭력에 의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은 가해자의 수업권에 비해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될까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수성폭력추진위원회(대교협) 토론회 자료집)

■ 명예훼손 역고소

교수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된다. 교수들이 성폭력 가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구실로 사건을 은폐하고 처리 과정을 지연시키며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나 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명예 훼손 역고소도 빈번히 발생한다. 교수 성폭력 사건은 가해 교수의 실명이나 성폭력 사건을 공개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알려질 수도 있으나, 이러한 활동은 성폭력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가해 교수는 성폭력 가해와는 별개로 공론화 과정에서 공개된 몇몇 단어나 전술을 문제 삼는다. 이렇게 성폭력 사건과는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피해자나 지원 단체 및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써 사건 처리 자체가 어렵게 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교수에 비해서 처지가 낮은 피해자들은 고소를 당했다는 점이 많은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교수에 대한 징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교수 성폭력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없다보니 징계도 대부분 가해 교수를 고려한 상황에서 내려지게 된다. 성폭력 가해 교수에게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징계가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많은 경우 감봉이나 정직 징계가 내려지고, 이러한 징계는 가해 교수의 지위를 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교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영향력 아래 있는 학생을 성폭력 가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라는 지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교수 성폭력이 의미하는 것은 가해 교수에게 더 이상 대학 사회에서 교수 지위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가해 교수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그 정도를 나누어 징계하는 것보다는 학생이 입은 성폭력 피해와 학습권 침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어찌 보면 학교 당국 자체가 가해 교수를 징계할 자격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성폭력 사건 해결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성폭력 가해가 이

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학교는 교수 성폭력의 또 다른 가해자라고 볼 수 있다.

■ 징계 및 처리 결과 공개

비록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공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를 할 경우 공개적으로 그 가해자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교수 성폭력 사건은 처리 과정이나 징계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교수 성폭력 사건의 예방에 있어서 실제로 처리된, 징계가 이루어진 사건을 공개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 예방에 반드시 필요하다. 사건 공개를 통해서 성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알려질 수 있고 일종의 예방 역할도 할 수 있다. 여성부의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제4조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예방 교육

반성폭력 학칙에는 연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가 명시되어 있다.⁵⁾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 차원에서 전 교수(강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 결과를 정부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만 한다. 하지만 대학 사회에서 교수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대다수의 남성 교수들은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자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거나 규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에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이러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 행위를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사건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교수들은 예방 교육에 대해서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보느냐, 기분 나쁘다는 식의 대학 사회의 책임감 있는 지위에 걸맞지 않는 반응들을 보이곤 한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 교수가 잘못된 거지 자신과는 상관없는 입장이 주류를 이룬다. 교수 사회가 이렇다보니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기관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예방 교육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 강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사들은 예방 교육 대상으로도 고려되지 않는다. 2003년 1학기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한

1100여명의 강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학칙이 시행된 지난 3년 동안 수천명의 강사들이 아무런 예방 교육도 받지 않고 수업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이러한 예방 교육을 받고 있는 교수나 강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 징계 재심의

교수는 성폭력 가해 행위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학의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의가 상급기관인 교육부에서 가능한 것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해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교육이 갖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활동 보장이다.

하지만 교수 성폭력에 있어서 징계 재심의 제도는 징계를 낮추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더구나 재심의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성폭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고, 교수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심의를 하게 된다.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징계 재심의 제도가 교수 지위를 이용해서 학생에게 성폭력 가해를 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활동을 명백하게 침해한 성폭력 가해 교수를 구제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5)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4항



교수 성폭력, 어떤 일이 있었나?

10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립대 총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10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는 학생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서강대 국문과 조교수에 대한 서강대 학교의 파면 징계와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파면징계취소를 결정하였다.

10월 15일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수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 가해를 한 시립대 조교수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를 재심사하여 해임징계를 결정하였다.

9월 17일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으로 문제가 된 시립대 조교수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하였다. 10여명의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 가해를 한 교수에게 이러한 징계 결정은 성폭력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시립대 학생들은 식발 항의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징계 재심사를 요구하였다.

9월 17일 연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논문 지도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성폭력 가해를 한 사회복지학과 조교수가 개인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가해 교수 징계 논의를 징계 결정 없이 종결하였다.

9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대학교병원 성폭력 가해 교수인 조교수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과 서울대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 이후 서울대는 전임교원 1610명 전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8월 29일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대구 명예훼손재판 분석 토론회'가 성폭력 역고소 공대위 대구특위 주최로 서울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교수 성폭력 피해자 자원과정에서 가해 교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한 대구여성전화 전 공동대표 2인에 대한 재판을 분석하고 이후의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8월 13일 서강대학교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복직한 뒤 다시 해당 성폭력 피해 학생을 괴롭혀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영성대학원 조교수를 해임했다. 조교수는 2001년 10월 화식 자리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성폭력 가해를 해 학교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7월 말 서강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정기학술답사 중 학부생을 성폭행하려한 국어국문학과 조교수에 대해서 파면 징계 결정을 내렸다.

6월 19일 한국교원대학교는 상습적으로 대학원들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조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다. 교원대는 학생들이 식발과 단식을 하고 지역사회단체에서 징계요구를 해도 학교차원의 징계논의를 미루다가 학생들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 채 정직 3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다.

6월 17일 서강대학교에서 47명의 교수들이 교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교수사회의 자성과 학교당국의 엄정한 사태수습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우리 대학을 상징해온 성실성과 고결성의 이미지가 교수들의 잇따른 추문으로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 동료 교수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직·간접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사랑하는 학생에게 위로와 사과를 전한다. ... 교수들도 자중자재하는 마음으로 대학의 이미지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학교당국도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월 5일 법원은 서강대학교 조교수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 "가해 교수는 피해 학생에게 2228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03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발표하였다. 각 대학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않는 것 그리고 성폭력 관련 학칙의 문제점 등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반성폭력 학칙 제정 및 개정과 대학 친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사건 처리체계 구축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 및 피해자의 보호 대책 강구를 지침으로 발표하였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를 제안합니다

초 근 많은 대학에서 교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학생 간의 위계적인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교수 성폭력'은 학문공간인 대학에서 여성의 학습권과 생활권, 더 나아가 노동권과 생존권까지 침해하고 박탈하게 되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특히 성폭력에 교수 지위가 이용됨으로써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교수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는 수많은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화된 대부분의 교수 성폭력 사건들만 두고 보더라도 그 처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당사자인 여성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해결을 담당해야 하는 대학 당국은 가해자가 교수라는 공식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 가해를 했다는 점을 무시한 채 교수 성폭력 사건을 남성 교수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하면서 학교 차원의 사건 해결과 예방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해 교수를 보호하거나 학교 명예를 위해서 성폭력 사건 자체를 은폐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대학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대다수의 대학에는 성폭력 예방 활동과 사건 처리를 위한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대학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성폭력 관련 학칙을 만들어 놓기만 했을 뿐,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 성폭력에 대해서는 반성폭력 학칙 자체가 별다른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성폭력 사건 처리 논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논의 자체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 학생보다는 교수의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이 논의되고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당국이 성폭력 사건 처리와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는 지금, 각 대학의 반성폭력



활동을 지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와 여성부는 각 대학들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학에서 힘들게 이루어진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교육부는 가해 교수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인 채 성폭력의 문제점이나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심의하여 성폭력 근절 노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반면에 각 대학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수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교육부와 여성부는 대학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별다른 지도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 교수 지위가 이용되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지금, 대학은 교수 성폭력을 사소한 개인의 문제로만 보면서 예방과 사건 처리에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부와 여성부는 반성폭력 학칙 제정 지침만 내릴 뿐 학칙이 어떠한 규정으로 제정되고, 대학에서 교수 성폭력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수 성폭력 사건의 발생,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딪치고 깨달은 것은 이상의 사실입니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바라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교수와 대학, 교육부, 여성부는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면서,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와 학습권 침해는 결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조금 늦게나마 교수 성폭력 근절과 해결을 위한 공동 활동 모임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를 제안 드립니다. 각 대학에서 교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총여학생회, 여성위원회, 여학생위원회, 학생회, 동아리, 학회 등에서 함께 모여서 그동안 각 학교에서 교수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교수 성폭력 문제를 개인 교수나 개별 학교를 넘어서서 대학 사회 전체의 문제로 여기고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는 이전에 구성되어 활동을 벌였던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와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의 고민과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2003년 10월 11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www.yonseilac.kr/~system / feminist@yonsei.ac.kr / 02-2123-3645

성폭력 가해 교수 징계 재심의 문제에 대한 성명서

1. 여성부와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에, 반성폭력 학칙의 제정을 권고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내에 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이후 사건 해결 과정에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되었고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성폭력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 이처럼, 교수 성폭력에 대한 답론은 이미 대학 사회 내에서 활성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제도 차원에서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강대 H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판단은, 재심위가 위와 같은 현 상황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교수 성폭력 사건과 관련, 재심위의 구성과 해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전차 발견되고 있다. 성폭력 사건과 같은 경우 일반적인 범죄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 특수성 때문에,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는 그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재심위 구성에서

이러한 전문성이 결여됨으로서, 사건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고, 가해자인 교수의 복직이 가지는 의미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3. 또한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재심위의 기준 역시 모호하다.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재심위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건들을 심사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동국대학교 K교수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인 '피해자 중심의 원칙'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재심위는 '해임'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춰버렸다. 이번 서강대학교 H교수의 경우도, '절차상의 문제'라는 모호한 이유를 내세워, 학교 당국이 사건 해결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린 '파면' 결정을 무시한 채 학교 징계위원회로 사건에 대한 징계를 다시금 요구하고 있다. 교수 성폭력 사건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조차 세워지지 않은 채 계속되는 재심위의 심사와

정은, 이후 다른 교수 성폭력 사건에 관한 재심의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만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만들고 있다.

4. 재심위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해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둔다'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교수를 비롯한 각급 학교의 교원들이 학교에 의해 불리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 사안을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재심사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해주자는 목적에서 재심위가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재심위 구성과 재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재심위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변질되어 가고 있다. 마치, 성폭력 가해 사실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수들을 '구제'해주는 기구로 전락해 버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재심위는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 특히 교수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대학 사회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인식해야 한다. 현재,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진 서강대학교 K교수도 재심위에 재심 청구를 해놓은 상태이다. 재심위가 교수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그간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버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를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강대학교 H교수의 사건과 관련해, 서강대학교 당국은 이후 징계 재논의 과정에 있어서 징계의 수위를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 재심위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을 인지하고, 재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또한 사건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하나. 재심위는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의를 할 경우, 전문 자문위원의 자문을 참고로 하고 그 의견을 반드시 최종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하나. 교육부는 성폭력의 문제점과 특수성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재심위가 성폭력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상황을 중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3년 11월 4일

교수성폭력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연대회의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서강대학교 여성위원회, 서울대학교 관악여성모임연대,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없는학교만들기운동본부(총학생회, 법정대학생회, 문리대 학생회, 국문과 학생회, 다함께, 동아리연합회) 송실대학교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신고하리라!

신나게 놀던 연고제 행사 중 들려오는 뒤통수 치는 소리

'떡벌어진 어깨! 마초 마초맨~' '아카라카 섹스 버전~'

반드시 들어야 했던 전공과목의 수업 중 당장 그 교실을 박차고 나오고 싶게 만드는 소리

'여자들은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책살 돈이 없거든 여학생은 몸이라도 팔아라'

공강 시간 잠시 쉬려 들른 동아리 방, 여자 연예인의 브로마이드를 펼쳐 놓고 앉은 남자아이들이

시시적 가리는-여성의 몸을, 나의 몸을 시선의 대상으로 난도질 하는 소리

'우와 애 가슴 봐, 정말 죽인다'

이 모든 폭력, 그 불편함과 짜증스러운 혼자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제기를 해도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가해자성을 부정하기에 급급하고, 더구나 수업시간 중에는 성폭력적 발언이 발생해도

교수-학생 간의 권력 관계 때문에 문제제기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 신고합시다!

혼자서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총여학생회는 학내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에 신고한다고 해서 총여학생회 한 곳에서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학내 상담실과 연계해서 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도 있고,

다른 단체와 연계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총여학생회로 오는 길

홈페이지 : www.yonsei.ac.kr/~ysfem

이메일 : feminist@yonsei.ac.kr

전화 : 2123-3645

위치 : 학생회관 3층 320호

특집

여성주의 매체



데이드림 1호부터 5호까지 총정리!

여성주의자치언론에 관해

다른 여성주의 매체 알아보기

- 주이쌍스, 석순, 정정현, 월장, 두압술

데이드림 1호부터 5호까지 총정리!!



01 첫 번째

특집 Cyberspace is a Battleground! 다양한 실험과 불명 등의 해소가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등장한 사이버 공간, 과연 그럴까? 결국 남성들의 언어와 시선 속에 여성은 배제되고, 대상화되고, 그로 인해 성폭력이 난무하게 된 사이버 공간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와 대안으로서의 여성주의 웹진 소개

기획 반문화 反문화

여전히 여성은 없는 대학 공동체 반에 대한 여성주의적 성찰

여성학 서평 성적 욕망 vs, 성적 폭력, 벗어나기와 함께하기

캐서린 배리(섹슈얼리티의 매춘화), 베티 도슨(네 방에 아이존을 키워라)

여성주의 미디어 비평 TV에 빠져들기 전에 당신이 명심해야 할 두 세가지 것들 일대일의 이성애 연애관계를 관하는, 나아가 강제하는 TV 뒤집어 보기

여성사 왜 여성사인가? history가 아닌 herstory, 남성만의 역사에 가려워진 여성들의 삶을 역사로 구성하는 꼭지

남성이 바라본 세상 남자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남성은 독립적이고 강해야 한다는 고정된 성역할 인식이 남성들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정서적 유대 대신 게임과 운동, '길가는 여자에 대한 품평'으로 채워진 남자친구들간의 관계에서 느낀 불편함을 풀어내 보았다.

이걸의 우리 모두 알아야 할 반성폭력 이야기

나의 변태 선생 이야기 문화처럼 생활 속에 스며있는 성폭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꼭지 첫호에서는 친구감을 빙자해 저질러지던 중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성폭력적 태도와 농담들을 살펴보았다.

만화 아쉽게도 연재를 시작했던 여성주의 만화 <W>, 그러나 작가의 사정으로 2호부터 연재가 중단되었지요.^^ 기대하셨던 독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늦은 사과를 드립니다.



02 두 번째

기획 여성의 노동 여성노동관련법 개악에 대한 이야기, 공적영역에서조차 여성에게는 고정된 성역할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았다.

특집 반전과 여성 전쟁을 반대하는 새로운 목소리 아들을 전쟁으로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시민과 국민의 이름이 아닌, 소수자로서의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기, Feminist speak against war-여성주의 반전 토론회 발제문도 실려있다

여성학 서평 군사주의를 여성의 입으로 말하기 신시아 인로(비나나, 해변, 그리고 기차), 캐서린 문(동명 속의 색)

여성주의 미디어 비평

왜 박용하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유진은 연예 활동을 중단하는가?

보여지는 존재로서의 여성스타가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당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개탄의 설을 풀어보았다.

여성사 화장,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화장한 여자는 노는 예고 화장 하지 않은 여자는 예의없는 여자다? 여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 - 여성이 해온 화장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남성이 바라본 세상 남자 벗어던지기

여성주의를 접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강요되던 남성성의 실체를 파악하게 된 남성의 이야기

이걸의 우리 모두 알아야 할 반성폭력 이야기

참을 만큼 참았어, 교수님도 이제 그만
수업 시간의 성차별적 발언들에 대한 문제제기



03 세 번째

기획 상반기 정리

인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박/만/파 총여학생회 절반을 보내며

기획2 못다한 이야기 성매매 피해여성의 시각에서 주한미군문제 바라보기/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사건/교수성폭력 토론회 등 지난 학기 동안 하고 싶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 미처 다 못한 이야기 몇 가지를 짚어보았다.

특집 그 '진보' 진보는 인권을 말하지만, 남성의 언어로 말해지는 인권에 여성은 없다. 손석춘, 유시민, 김규환, 진중권 등 대표적인 진보 논객들의 페미니즘 까대기와 남성의 얼굴을 한 민족주의를 암세했던 여중생 사건 해결을 위한 촛불시위 풍경을 되짚어 보았다.

여성학 서평 여성주의를 하는 남성들

Tom Digby <여성주의를 하는 남성들>

여성주의 미디어 비평 어머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미디어에서 어머니는 무한한 모성을 가진 가족을 위한 가시노동에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로 밖에 그려지지 않는다. 미디어가 조장하는 모성담론 속에는 독자적이고 실제적인 한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서의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사 우리 깊은 화냥년의 역사

말 그대로 '뿌리 깊은' 여성의 성이 매매되어온 역사

남성이 바라본 세상 폭력 없는 불쾌함, 남성에게 성폭력이란... 남성은 대개의 경우 성폭력을 폭력이 아니라 불쾌감으로 인식한다. 이런 시선은 s마상에 게 덕치는 남성 간 성폭력의 심각성을 탈각시킨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남성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역시 그 심각성, 폭력성을 탈각시켜 이해하게 된다.

이걸의 우리 모두 알아야 할 반성폭력 이야기 해마다 여름이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게 되는 여름이면, 남성들은 노출된 여성의 몸을 시선으로 토막내 감상하며, 심지어는 성폭력적 가해를 하기도 한다. 가해자들은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 그렇지'라는 피해자 유발론으로 자신을 변호하려하지만, 그건 창문을 열어 놓았으므로 도둑을 맞는 것이 당연하다는 허황된 논리일 뿐.





04 네 번째

기획 Women in yonsei 불편한 반향, 필요한 여휴, 학점을 보장받을 수 없어 신청을 기피하게 되는 교양체육, 도대체 찾아 볼 수 가 없는 여성 교수님들... 연세대학교 안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성별화된 사정들을 진단체 보았다.

특집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깊은 편견과 위협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방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여성학 서평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성주의 미디어 비평 천생연분은 없다
‘찍만 찾으면 만사형통’? 천생연분을 강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열어두는 여성들을 활기차게 보여주는 <상글즈>의 매력

만화 비평 꽃과 꿀벌 : 평범한 소년의 연애 성장기
기안노 모요코<꽃과 꿀벌>

남성이 바라본 세상 군대 성폭력과 “계간”금지법
남성 중심적 사고가 빚어낸 성폭력적 문화를 동성애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환원시키는 군대 이야기

이갈의 우리 모두 알아야 할 반성폭력 이야기
성폭력,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 절차에서 국가는 2차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 성폭력 생존자들이 국가를 가해자로 고소한다.



05 다섯 번째

기획/특집 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기획/특집1 6회 여성제 : 아내 폭력 아내 폭력에 대한 편견 점검, 가족해체의 문제에서 여성인권 문제로 아내 폭력을 사고하는 틀을 바꾸자.

기획/특집2 6회 여성제 : 학내 성폭력 폭력은 어느 곳에서든 성별화되어 있다 - 교수성폭력, 반성폭력 학칙 공청회 이후의 이야기, 학내 여성지도

기획/특집3 제6회 여성제 : 성매매 성매매에 대한 무지와 편견 점검,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촉구, 청소년 성매매를 청소년 문제가 아닌 여성의 문제로 다시 보기

만화 비평 M병과 그 치료에 관한 보고서 김미영의 ‘왔다’

여성주의 미디어 비평 과연 러브하우스에서 그들은 행복할까
러브하우스에 있는 것은 성우의 목소리만큼이나 아늑~한 공간들이 아니라 휴머니즘으로 포장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실직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능력 문제로 환원한 채 자본주의적 인간으로서 ‘성실히 살 것’을 다짐시키는 장난들이다

이갈의 우리 모두 알아야 할 반성폭력 이야기
가벼운 농담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남자들의 성적 농담, 그곳에 여성의 자리는 없다

그 여자가 말한다. 그 여자가 글 쓴다. - 여성주의자치언론에 관해

by_ (서울대학교여성주의자치언론 “쥬아방스”) 아생까지

매

체가 범람하는 시대이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의 양은 굉장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이니, 다양성의 시대이니 하며 저 빛나는 인류의 진보 아래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들 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그런지는 알 수 없다. 다양성이란 말은 ‘무엇이든 인정한다’는 말로 대체되었고 그 와중에 힘있는 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결국 힘없고 돈 없는 약소 언론들의 목소리는 더욱 사장되는 것이 현실일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너무 가혹한 평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성주의와 매체의 결합은 처음부터 난항을 예상하게 한다. 여성주의 매체는 보그걸의 화려함도 없겠고, 단지일보의 시원함(그 방법에서 지극히 마초적인)도 함부로 표방할 수 없다. 이 문제 많은 여성주의가, 매체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는 궁극하다.

매체란 좀더 폭넓게 이야기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두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매체가 지향하는 관점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다. 아직도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XX연예인 성노리개’나 ‘X양 비디오 또 발견’과 같은 카피들이 넘쳐나고 성매매를 다루는 언론의 썩은 관점 앞에서 범람하는 온갖 매체들 속에 아직도 여성의 관점은, 여성주의적인 관점은 다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여성주의 매체의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의의로 출발한 여성주의 매체의 행로는 그다지 아름다운 것이라 할 수 없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여성주의 매체의 특수성 중에서도 학내 여성주의 매체의 특수성과 연결지어 이야기 해볼까 한다.

학내 여성주의 매체는 2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학내’에 속해져 있다는 것과 ‘여성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외부 언론들과는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동시에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함께 있다. 90년 대 초반부터 하나 둘 씩 생기기 시작한 학내 여성주의 매체는 다양한 정치적 상황과 글 쓰기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을 단순히 ‘학내여성주의매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 힘든 가부



장의 세상에서 그래도 여성주의로 글 좀 써보겠다고 바드득거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공통점은 있다.(아마 있을 것이다.)

지금 각 대학에는 꽤 많은 여성주의 매체들이 있다. 사실 학내 여성주의 매체의 시작은 운동을 위한 계렬라식의 선전물

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때의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나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 점차 고려대학교 여성주의교지 석순이나 성균관 대학교 정정현과 같은 여성주의 교지가 생기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연세대학교 데이드림, 두입술이나 서울대학교 주이쌍스, 부산대학교 웹진 월장 등 자치언론의 형식으로 여성주의 웹진이나 인쇄 매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 이외에 다른 학교에서도 활발히 매체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 매체가 가지는 특수성과 상황은 아주 다양하다. 여성주의 교지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로 인해서 그 분량이나 내용면에서 훌륭하지만 내용면에서 검열되거나 모든 학생들을 독자로 삼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모두 풀어낼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고 들었다. 반대로 여성주의 자치언론의 경우 고질적으로 겪게 되는 재정적 문제와 공간의 문제로 인해 매 호를 낼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상황에 있어서 천차만별인 여성주의 언론은 다양한 글 쓰기 방식을 지향한다.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랄하고 재치가 엿보이는 글쓰기에서부터, 논문식의 글쓰기, 혹은 수필 식의 바닥 굵은 우울한 글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런 시도는 여성의 글쓰기, 혹은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글쓰기가 하나로 규정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여성주의적인 글쓰기는 그 내용에서부터 방법까지 앞으로 더욱 많은 논의와 고민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인 주이쌍스는 좀 과장한다면 문학동인지라고 할 만큼 개인적이고 문학적인 글을 뽐낸다. 사실 지금의 주이쌍스가 이런 모습을 (앞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가지게 된 데에는 다양한 글쓰기나 매체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또 대상 독자를 누구로 선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도 그것을 여성주의자로 설정할 것인가, 여학우들로 설정할 것인가, 모든 사람으로 할 것인가 등(이 경계도 분명하지 않겠지만) 애매하고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다.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주이쌍스는 별로 친절하지 않은 매체이며 '읽고 싶으면 읽고 말고 싶으면 말아' 등의 도도한 자세를 유지하려 했으나 요즘에는 이슈 파이

■ 각 매체가 가지는 특수성과 상황은 아주 다양하다. 여성주의 교지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로 인해서 그 분량이나 내용면에서 훌륭하지만 내용면에서 검열되거나 모든 학생들을 독자로 삼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모두 풀어낼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고 들었다.

■ 여성주의로 말하고 싶었다. 여성주의로 글 쓰고 싶었다. 단지 그것뿐! 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소망이지만, 이 힘들고 짜증나는 가부장들의 세상에서, 적어도 귀를 막고 도망갈 소리는 하지 않는 여성주의자의 관점으로, 적어도 자신은 그게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글 쓰고 말할 것이다.

팅과 학내 여성주의 행사 보도에도 열 올리려고 한다. (열만 올리다 식을지는 알 수 없다)

학내 여성주의 매체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여성주의적인 매체를 고민함과 동시에 여성운동 전반에 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것 또한 말은 거창한데 사실 별 것 아니다) 기존의 여성주의 매체는 내부의 여성주의(여디를 내부로 설정하느냐의 문제도 남아있겠지만) 비판에 관해서는 거의 무지한 관점을 보여왔다. 학내의 여성주의를 다룬다면 여성주의 행사를 알려내는 정도에 그쳤다. 사실 세상에 마초가 너무 넘침으로 여성주의는 스스로가 자기를 반성하고 바라보기도 전에 마초들의 어이없는 공격을 방어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 많다. 독자들과의 피드백을 좀 하려하면 게시판에 항상 올라오는 것은 '여자는 자고로...'를 외치는 마초들의 큰 목소리가 게시판을 도배하고 군 가산점 문제로 붙여진 이화여대총학생회 사이버 집단 테러나 월장의 경우처럼 여성주의에 분노하는 마초들 때문에 여성주의는 스스로를 바라볼 시간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주의가 화석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초기의 문제의식과 세상에서 당연시되었던 틀에 저항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여성주의는 계속되는 자기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하며 이런 역할의 중심에 여성주의 매체가 있어야 한다. 여성주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내는 효과적인 전략으로서의 여성주의 매체임과 동시에, 여성주의자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학내에서 일어나는 사안사안에 '여론'을 만들어내는 일은 여성주의 매체의 몫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성주의 매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재정적인 안정적 지원체계를 담보하고 시작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불황이다 뭐가 하면서 기획사에서 여성주의를 타이틀로 걸고 광고를 따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데에다가 가끔 들어오는 광고가 '여자는 예뻐야 잘살죠' 같은 광고라면 더 할 말이 없다. 광고 따는 것도 능력이지요 라는 말을 뱉는 잘 나가는 매체(모든 심각한 것을 가볍고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능력을 지닌)의 어떤 편집장의 말을 기억하면서 여성주의 매체를 준비한다면 학교나 기획사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확보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여성주의로 말하고 싶었다. 여성주의로 글 쓰고 싶었다. 단지 그것뿐! 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소망이지만, 이 힘들고 짜증나는 가부장들의 세상에서, 적어도 귀를 막고 도망갈 소리는 하지 않는 여성주의자의 관점으로, 적어도 자신은 그게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글 쓰고 말할 것이다. 더불어 데이드림 마지막 호에 글을 맡겨주며 '나 하고 싶은 말 다 해!' 라고 말해준 데이드림 편집진 여러분에게도 건필을 기원한다. 좋은 글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주이쌍스" 웹진 jouissance.pe.kr



다른 여성주의 매체 알아보기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쥬이쌍스

쥬이쌍스는 어떤 매체인가요?

쥬이쌍스는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으로서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여성의 이슈들을 말하는 매체입니다. 주로 학내 여성주의 행사 보도나 여러가지 남성중심적인 시각이나 사건들을 비판하고 여성주의적인 언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쥬이쌍스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학내 여성주의 진영에서 근자에 제시되던 '매체 발간'이라는 화두가 기어이 2002년 2월 인문대 모처에 모인 몇몇 사람들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부터 여성주의의 눈으로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매체 발간에의 욕구는 서서히 중대되기 시작했을 터다. 곧 학내 자유게시판에 '여성주의 자치언론을 제안합니다'는 제안서가 뿌려지고 이를 보고 온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알음알음 모이자 제법 공동체를 꾸릴 만큼의 수가 채워졌다. 그리고 곧 이들은 매체를 만들던 그 시점에 이름에 대해 몇 번인가의 고민을 한다. 결국 '진부한' 상상력은 누군가의 말을 차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니, 그 이름도 매력적인 쥬이쌍스(Jouissance, 열락)였던 것이다.

현재 쥬이쌍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요?

두 명의 공동편집장과 9명의 필진으로 이루어져 있고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편집회의를 거쳐서 기획을 잡고 책을 만듭니다. 외부필자에게서 원고를 받기도 하지만 거의 편집위원들의 글로 만들어지지요.

그동안 쥬이쌍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호나 기사가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4호에 글이 기억에 남아요. 쥬이쌍스는 매호 모습을 달리해왔고 아직도 그 고민은 계속되고 있음으로 각 호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는 방식은 무척다른 것 같아요. 4호의 주제는 '책'이었는데, 그 때 쥬이쌍스 사정이 내부적으로 좀 어려워서 다른 호보다 훨씬 적게 찍기도 했었고(400부) 필진들이 바뀌던 때라 많이 힘들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애착이 가는 호입니다. 책이라는 주제를 여성주의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라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한 호거든요. 제가 자체편집을 하기도 했었고, 0,0 지금도 4호는 제일 구하기 어려운 호일 거예요.

쥬이쌍스가 여성주의 매체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나요?

여성주의 매체가 지향해야 할 바는 여성주의를 어떻게 알려내고 고민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지요. 매체의 시대에 많은 매체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매체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쥬이쌍스는 그런 매체 문화에서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확보하고 여성운동 내부의 생산적인 비판과 이슈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지요. 학내에서 교수 성폭력 사건 등에서도 입장을 발표하고 이슈를 만들지요. 얼마전 대동제 관련해서도 반성주의적인 문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쥬이쌍스 제작에 있어서 어려움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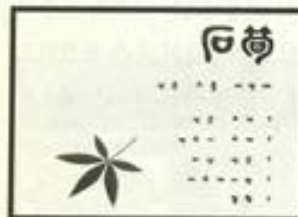
물론 돈이 문제지요. 여성주의를 걸고 광고를 따는 어려움이라던가, 자치언론의 기금 확보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 매호 쥬이쌍스의 상을 정립해서 글을 쓰는 것도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여성주의자라고 해도 생각이 똑같은 게 아니니까 말이예요.

쥬이쌍스는 어떤 활동을 계획중인가요?

부지런히 책을 내고 웹에 꾸준한 업데이트를 계획 중입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글도 많이 써주시구요. 쥬이쌍스를 받아보시고 싶은 분은 1년에 1만원을 내면 후원회원으로 등록되고 책을 2권씩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후원회원비는 책을 만드는데 사용되요. 자세한 건 쥬이쌍스 홈페이지에 있어요. 여성주의 문학 세미나 선전 학교를 개최할 예정이고 관악여모와 인연(인문대 여성주의자연대)와 함께 성폭력적 수업 환경 근절을 위한 모임에도 결합 중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jouissance.pe.kr/>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석순은 어떤 매체인가요?

석순은 '여성주의적 인식의 과학적 확산'이라는 모토 아래 발간 20돌을 맞은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입니다. 일년에 두 번 책을 발간하구요. 기존의 학문 체계로서 굳어진 '여성학'의 범주에 속해있는 주제, 소재에 한정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적 인식, 즉 성평등적 자세, 소수자적 입장, 반권위주의적 태도 등 여성주의적 시선으로 세상을, 인간을, 학교를 바라보는 매체입니다.

“

여성주의 매체가 지향해야 할 바는 여성주의를 어떻게 알려내고 고민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지요. 매체의 시대에 많은 매체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매체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쥬이쌍스는 그런 매체 문화에서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확보하고 여성운동 내부의 생산적인 비판과 이슈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지요.

“

석순이 가지고 있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통해서 본 세상을 전학우를 대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 그 대상이 고려대학교를 다니는 여남대학생이라는 것, 그것은 석순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책임이기도 해요. 학우들의 소중한 돈을 그 이상의 가치를 통해 돌려주어야 한다는, 석순을 믿은 학생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 한 권 한 권에 임하고 있어요.

석순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석순은 까마득한 1982년 9월에 여학생 공개 토론회에서 여학생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1983년 5월에 탄생했어요.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회지'의 형식으로 출발했고, 당시 '여학생, 여학생회지'라는 좌담회 정리글을 보면, '숫자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참여할 공감의 장을 갖지 못해 서로를 확인하고 인사할 여유를 갖지 못했던 여학생, 이제 여학생 회지로써 첫 출발을 하려한다.(하략)'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십년이라는 까마득한 거리에도, 여전히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소수자적 위치와 그에 따른 소외는 여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순은 어떻게 발행되나요?

석순은 교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지대비로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 언론들에 비해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전학우의 교지대비'라는 것은 석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명제예요. 석순이 가지고 있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통해서 본 세상을 전학우를 대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 그 대상이 고려대학교를 다니는 여남대학생이라는 것, 그것은 석순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책임이기도 해요. 학우들의 소중한 돈을 그 이상의 가치를 통해 돌려주어야 한다는, 석순을 믿은 학생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 한 권 한 권에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순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공부도 하고 여성주의적 활동도 하며 석순을 만든답니다.

그동안 석순 중에서 기억에 남는 호나 기사가 있나요?

앗, 지금 석순을 하고 있는지라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참여한 23집이 기억에 남지요. 모두들 유독 고생하고 만들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성폭력, 환경, 민족과 여성, 매체, 포르노 등에 대한 다양한 글이 있으니 보고 싶으신 분은 석순에 연락주시길!

석순이 여성주의 매체로서 학내 외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석순이 학우들의 교지대비를 받는다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편협하고' 확고한 특정 입장을 지닌 석순에 왜 학우들이 돈을 내야 하는가 하는 의견들 때문이죠. 저는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고려대학교라는 남성중심적인 공간에서 여성이라는 사회적 소수자의 시선을 지닌 석순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빠른 인터넷 매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석순은 일년에 두 번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나름의 오랜 공부와 내공으로 글 속에 녹여내려 노력하고 있어요.

활동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학우들의 피드백 부족과 여성주의에 대한 몰이해죠. 아직도 석순은 무모해보이는 언어폭력/물리적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전혀 피드백이 느껴지지 않는 게 글쓰는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것 같아요. 석순은 소통을 바라고 있어요.



석순은 어떤 활동을 계획중인가요?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24집을 만들어갈 계획을 찬찬히 짜며 세미나로 공부도 할 생각이예요. 고려대학교의 여성주의자/단위 모임인 '안암여학생연대회의'와 함께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주소는?

아직 공사중이라 미흡하지만 지난 석순도 볼 수 있고 게시판에서 석순니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www.suksoon.net 많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매체들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자치언론 두입술]

두입술은 학내 여성자치언론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으로서의 여성주의를 고민하고 여성주의 글쓰기를 하는 곳. '두입술'을 발간한다.

community : www.unninet.co.kr에서 '두입술' 커뮤니티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

정정헌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대안적인 여성주의 담론의 소통 공간으로 일년에 한번씩 발간되는 여성주의 교지이다. 1971년에 창간되었고 지난 9월에 '정정헌' 제 33호가 발간되었다.

웹사이트 : sosim.jinbo.net



[부산대학교 여성주의 웹진 월장]

월장은 부산대학교의 여성주의 웹진이다. 2001년 창간되었고, 현재 10호까지 업데이트되었다.

웹사이트 : www.wallzzang.net

제 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6회 여성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9.29
여성제 개회식 Home Sweet Home
퍼포먼스 - 12시 15분
여성제 개회식 개회식 / 12시 15분 /
국립중앙도서관 2층 205호
10.1
시각화 여성제 개회식 NEXUS
20-21시 15분 10.1
(시각화 여성제 개회식 10.1)
상설전시관 2층 205호
10.2
시각화 여성제 개회식 NEXUS
20-21시 15분 10.2
(시각화 여성제 개회식 10.2)
상설전시관 2층 2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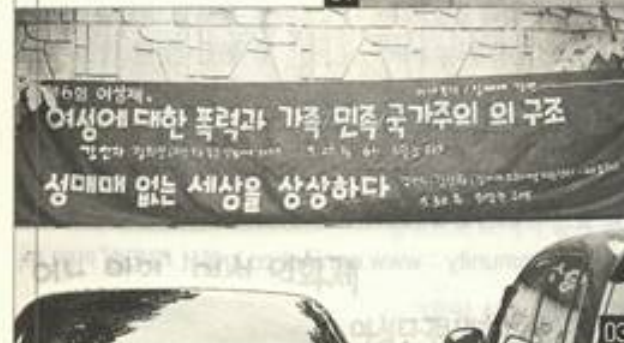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01 제 6회 여성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일정이 담긴 원자본가 책갈피 옆에 부착되어 여성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02 백양로의 가로등마다 '어느 멋진 날-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가 쓰인 배너가 걸렸지요 배너를 다는 것과 여러 친구들이 고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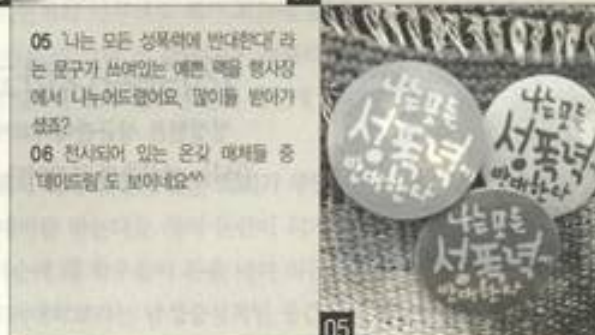
03 여성제에서 진행될 프로그램과 같이 나누게 될 내용이 쓰여있는 PC가 백양로에 이어달렸습니다.

04 연세대학교 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는 야심찬 기획하여 만들어진 여성지도, FEMSPACE IN YONSEI! 많은 분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2003 제 6회 여성제 Sketch

제 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개막 퍼포먼스 'Home, Sweet Home', 자보전 연세 여성 지도, 여성주의 매체 및 도서 전시회 성대매 없애기 서명운동, 소망나무 소망달기, 정해진 선생님·감성희 선생님·김현미 선생님의 강연, 새우터 언니들과 함께하는 비즈공예, '어느 멋진 영화제' 등의 행사들이 학내 곳곳에서 진행되었던 이번 여성제의 모습을 스케치해봅니다. 더불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 분들과 좋은 강연 들려주신 분들, 함께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 이번 여성제 기간 내내 최대의 테크, 바로 '바람'이었죠 너무 거세게 불어대는 바람 때문에 열심히 전시해 놓은 자보들이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11 첫날 오후에는 호프의 퍼포먼스 'Home, Sweet Home'이 민주공장에서 진행되었어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호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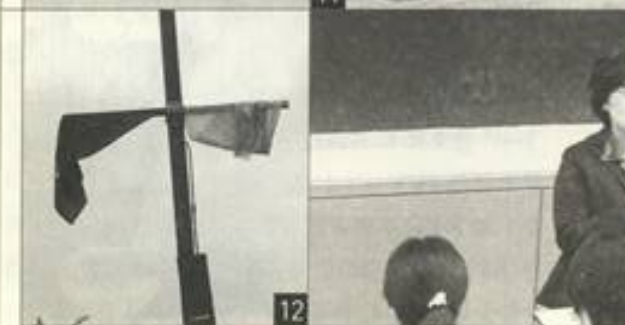
12 첫날에는 아침부터 날씨가 흐리더니 비가 오기까지 했어요. 비바람이 불어쳐서 백양로에 걸려있던 배너들이 뒤집어지기도 했죠.

13 3일동안 매일 저녁 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김현미선생님께는 10월 1일 '성폭력 판 폭력: 관습과 인간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의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내용의 강연을 해 주셨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7 중앙도서관 앞에는 부스가 설치되어 소망나무 소망달기, 성대매 없애기 서명운동, 비즈공예를 판매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08 부스 바로 뒤쪽으로는 여성주의, 학내성폭력, 성대매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보들이 4일 내내 전시되었습니다. 교수 성폭력 안화 기억나시죠?

09 여성제 기간 내내 학생회관 로비에 사는 여성주의 도서 및 매체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제 6회
여성제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어린 시절 잘 모르는 친척 할머니의 초상을 치르면 날 우리 집보다 더 서늘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다녀와서 나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여전히 머리 속에 남아있는 알록달록한 상여와 저 높은 곳에 걸려있던 영정 사진의 이미지는 정확히 내가 본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죽음'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죽음'이 '삶'의 끝이라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한편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역시 두려운 것은, 단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어서만은 아닐 것이었다.

나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집에 있던,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유품이라던 커다란 장롱에 대한 기억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오래된 가구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그 장롱의 소유자였던 할머니는 이미 '죽음'의 세계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죽음 뒤에 삶이 있다면, 내 방에 '귀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 공포의 이야기이다. '죽음'은 내게 있어 굉장히 큰 무게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장작 주위 사람이 죽거나 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 같다. 사라짐, 다른 세계로 건너감, 혹은 '죽은 사람', 다른 말로 '귀신'.

이 공포는 내가 죽을 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공포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건널 수 없는, 그리고 건너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경계를 넘어서, 알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하는 자들이 내 뒤에 있

타자, 경계, 그 사이의 상상력

나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집에 있던,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유품이라던 커다란 장롱에 대한 기억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오래된 가구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그 장롱의 소유자였던 할머니는 이미 '죽음'의 세계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죽음 뒤에 삶이 있다면, 내 방에 '귀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 공포의 이야기이다.

글_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 협동과정)



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다. 이런 두려움을 다시 상기하게 된 것은 다큐멘터리 '영매'를 보고 나서였다.

'영매'는 산 자와 죽은 자의 대화를 매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영매'들은 곳을 하며 삶과 죽음의 이분화된 공간을 매개하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과거와 현재를 매개한다. '영매'들이 불러내는 귀신은 더 이상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삶을 공유했던 사람이며,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인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매', 무당이 귀신을 불러내는 것은 신비한 체험이라기보다는 마치 좁은 경계처럼 되어 있던 삶과 죽음의 이분화된 공간을 지우고 그 '사이'를 넓혀나가는 일종의 현상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귀신'이라는 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연을 우리가 완전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해 불가능함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이분화된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더 공고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매: 산 자와 죽은 자의 대화'에서 삶과 죽음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호한 '사이'의 공간이 극도로 넓어지는 '굿'이라는 이벤트에서 현상의 중재자로 '영매'는 이분화된 경계를 무시하며 삶과 죽음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언어와 공간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이'의 공간에

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 영화에 대한 글을 여성주의 미디어비평으로 쓰고 싶었던 것은 이 멋진 상상력을, 타자에 대한 시선이나 자아와 타자의 경계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타자를 절대화하지 않고 나와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삶을 훨씬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영매: 산 자와 죽은 자의 대화'에서 나이든 무당은 너무도 무덤덤하고 일상적인 말투로 같은 동네의 할머니에게 살 날이 몇 년 남지 않았으니, 즐겁게 여생을 보내라고 말한다. 이 말에서 죽음은 이미 나의 삶 속에 있고,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가며 보다 여유로운 삶이 가능해진다.

나는 남성중심적 재현체제에서 여성은 항상 타자로 존재해왔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몸에 대한 신비화, 여성의 열등성에 대한 신화들은, 여성을 타자로 규정할 뿐 아니라, 이러한 의미 체계에 익숙한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타자화하도록 강요해오기도 했다. 어쩌면 여성으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은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내가 타자화하고 있던 어떤 모습들, '여성성'에 전적으로 부합하거나 혹은 어긋나기 때문에 저 뒤편으로 미루어 놓았던 나의 이면들, 혹은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타자화하던 여성들의 모습을 다시 내 삶 안으로 불러들여오고 그러한 인식들 속에서 더 자유로운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것, '영매'는 타자성에 대한 통찰을 주는 영화로 읽어볼 만 하다.

성폭력, 우리 모두의 문제

- 사건 해결에 적극적인 공동체 문화를 위하여

언젠가 내가 회원으로 있던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사이버성폭력' 사건을 해결해야 했을 때, 결과를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몇몇 회원님들 덕분이었다.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 사건의 피해자들은 무력했을 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너희가 꾸민 일이 아니냐" 질문했다면, 눈에 보이는 증거도 명확치 않았던 성폭력 사건에 오히려 명예훼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을 지도 모른다. 가해자의 유리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공감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함께 해준 이들의 힘이었다.

공동체 문화-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

성폭력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가장 힘을 얻는 곳도, 또 가장 상처를 받는 곳이 바로 그들이 속한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 받은 상처에 덧대지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질책이다. "너가 뭘 잘못했겠지" "그 사람이 괜히 그랬겠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잘못 들은 거 아니냐" "한번 조용히 넘어가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조직 내에서 눈치 보느라 한 마디도 거들어주지 못하는 사람들. 어렵사리 말을 꺼낸 생존자들은 이런 반응 앞에 다시 한번 세상 무

너지는 기분을 느낀다.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당당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거짓이 아니냐고 종종 받아야 하는 그 처참하고 야속한 기분이란.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이 오히려 더 자신과 지지자들을 힘들고 지치게 만든다고 한다. 사실 주변 사람들의 대응은 사건의 해결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가해자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기반한 공동체 내의 판단이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가해자도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는 없다. 반대로 자신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주변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되려 큰 소리를 치고 발뺌하거나 나중에 자신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말을 번복하는 가해자들을 수없이 봐왔다.

내 편이 한 명만 있어도...

활동을 하다 보면 신고나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개인적으로 '말 못할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린다. 그 '오프더레코드' 이야기들은 대부분 공개했을 때 피해자의 신변 보장이 불가능한 사건들이라 많은 고민 끝에 공식적인 해결을 포기해야 했던 사건들이다. 그녀들은 대부분 사건을 공개했을 때 자신의 편에 서줄 지지자 한 명만 그 커뮤니티 안에 있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거라 말한다. 모두가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사건만 발생하면 가해자의 인권만 살아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 그럴 때면 직접적으로 그 조직의 외부에 있

는 지지자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성폭력 사건을 공개하는 순간, 그 커뮤니티로부터 배척당하게 될 생존자의 운명을 알면서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면 뭐 하러 더 있다고 설부르게 말해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그 괴로움과 고통은 생존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폭력 사건은 덮여지고 가려지고 사라진다. 생존자의 가슴에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성폭력 사건 대처, 우리 모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사회는 여전히 성폭력 사건에 공식적으로 대처하는 데 너무 서투르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상의하는 메일의 대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 지 몰라서...'로 시작된다. 2차 가해자들을 만나봐도 (물론 사건을 은폐하려는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도 많지만) 처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막막해서 그것이 2차 가해인지도 모른 채 저지르게 되었다고들 한다. 그만큼 '성폭력'에 대해 무지하고 둔감하다는 소리다.



성폭력은 그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화의 문제라 했다. 그만큼 그 사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이기도 하다.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디에 서 있었는지 우리 공동체는 그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성찰해보자. 생존자를 질책하는 '무심코 뱉는' 말들, 알려지면 우리 흉이라고 덮어버리는 태도, 우리 조직의 모습은 아닌지. 건강한 공동체라면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성찰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반성폭력 세미나,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 워크샵, 우리 공동체에 알맞은 자체 내규 만들기...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2차 가해자가 되느냐 생존자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느냐는 어쩌면 너무나 얇은 종이 한 장의 차이인지도 모르겠다.

마치며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나의 동료들이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며 싸워야 할 때, 그녀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지원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책임' 져야 할 몫이다.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 단어의 무게만큼이나 나를 힘겹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지켜내는 것, 피해에 대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물음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당연해질 때까지 묻고 또 물어서, 말하고 또 말해야 할 것이다. '성'적 차이를 기반으로 해 벌어지는 폭력과 범죄들, 그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자고 말하고 싶다. 그 지지의 몫이 생존자에게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는 깊은 성찰과 함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차례다. 진실의 편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다.

by_ 이갈

포르노에 리콜을!



글 콰이

(여성주의를 통해 나를 비롯한 남성들이 그 진리는 다르게 세상을 보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상물로서의) 포르노를 처음 본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다. 장소는 같은 반 친구네 집(물론 가족들은 없었고). 출출했는지라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비디오를 틀었다. 몇 분 지나자마자 나는 비위가 상해 도저히 먹고 있던 것을 삼킬 수가 없었다. 남성의 발기된 거대한 성기도 역겨웠지만, 처음 본 여성의 성기 또한 정그러웠다.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판타지 때문이었을까. '아니 아름다워야 할 여자의 몸에 저렇게 이상한 부분이 있다니...' 하고 생각하며 받았던 감정적 충격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리고 '인간을 성기로 환원시켜버리려는 시도' 인지 모르는 그 남성 성기의 피스톨 운동의 클로즈업은 정말 지루해서, 친구들과 뭔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남성 배우의 그 우직한 체력과 지칠 줄 모르는 삽입 행동과 여성 배우의 만족도의 비례관계는 보던 나나 친구들을 주눅(?)들게 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공격적인 성적 행동을 모방하도록 부추겼을 것이다. 내가 봤던, 아니 거의 모든 포르노물에서 여성 배우들은 여성끼리 섹스하거나(그럼에도 나중에는 와서는 남성이 와서 둘다 만족시켜주는 재현을 한다) 때리거나, 갖은 모욕을 주어도 만족하고 싶은 표정 한 장면 안 잡히는 '지칠 줄 모르는 성욕'의 여성으로 재현된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여성을 제압하는 남성이 등장하여 그 여성의 성욕을 만족시키고 포르노 왕국의 지배자로 군림한다. 참으로 나름대로 순수(?)했던 소년 시절에 포르노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성행위란 정말 저런 것인가. 여성들은 정말 저런걸까'라는 의구심과 두려움, 불결함 등의 복잡한 느낌이었다. 흔히 포르노를 보는 것이, 만족과 쾌감을 느끼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포르노를 보면서는 전혀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

포르노를 보는 것은 차라리 친구들과의 놀이에 가까웠다. 보통 포르노를 볼 때는 친구들과 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지금은 인터넷 네트워크의 빛나는 발전에 힘입어 어찌어찌 정보를 입수하면 쉽게 다운 받아 방 안에서 혼자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도대체 남자 애들이었으면 다 알만한 청계천 상가 등지에서 구입했던, 또는 집 안에서 아버지나 형들이 보던 비디오테이프들이 학급에서 돌고 돌아야만 포르노를 접할 수 있었다. '오늘 시험도 끝났는데 누구 누구네 집에 가자'라며 우르르 몰려가서 노는 과정 중에 하나의 이벤트가 포르노 보기인 것이다. 처음 볼 때부터 여전히 불편했던 감정들은 계속 되었지만, 그것을 내색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야 저 남자 꺼 좀 봐. 존나 크다. 여자 가슴 좀 봐. 야 꼴리냐? 하하하'라고 서로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 '나는 재미없고 비위 상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친구들과의 놀이의 하나로 나도 '남자라서' 당연히 포르노를 즐겨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내가 지금까지 두서없이 포르노에 관한 경험을 얘기한 것은 포르노가 가지고 있는 '허구적인 여성상'과 '성폭력적인 내러티브', '남성의 공격적인 성적행동' 등 여성학 수업 시간 리포트에 나올 만한(물론 중요한 비판인 것은 여자가 없다) 것을 쓰려는 것이 아니다.

흔히 '남성들은 포르노를 보면서 흥분하고 만족한다.'라는 통념에 대해서 나 스스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남성들과 얘기를 보진 않았지만 남성들이 포르노를 처음 보고 느낀 감정들은 위에 내가 썼던 경험처럼,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것 같다. 로맨스와 이미지와는 상당히 대척점에 있는 인간의 동물적인 면을 보고 더럽고, 불결하고, 때론 여성의 대상화에 진저리가 날 것이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아직 순진하니까, 성적인 면에 눈을 떠가는 그저 흥'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성상담실의 답변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용해야 한다~ 이다)

어떻게 보면 포르노를 보면서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꼈던, 그리고 별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던 남성들의 다양한 불만사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저 그냥 남자라면 한 번쯤 봐야할 것 같은 호기심으로, 또래친구들과 따지지 않으면 봐야 해서 봤던 포르노가 자신의 판타지와 거리가 멀고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을 마치 상품처럼 '리콜'을 두는 상상을 해 본다. 예를 들어 포르노나 소위 예로 영화들을 보면 나오는 대표적인 장면인 '여성이 절정에 오르는 장면까지' 남성이 애쓰는 과정에 불만을 표해보자. 사실 여성이 절정에 오르는 재현 장면을 보고 내가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참 공감하기 어렵다.



내가 여성을 만족시켜야 나 스스로가 만족(이것은 성취감인가? 정복감인가?)하는 것은 뭔가 억울하지 않은가? 그리고 어떤 남성들은 적나라한 성기 묘사와 하드코어 포르노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그 외의 어떤 남성은 남성이 수동적인 위치의 재현물을 보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불만사항은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포르노의 문법은 바뀌고 있지 않다. 아니면 여전히 남성의 욕구는 지금의 포르노의 요구에 충실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포르노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남성들의 감정, 아직 미약해서 감지할 수 없는 다른 판타지와 남성의 욕구들이 존재한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기존의 포르노에 (남성들이) 리콜을 하며 다른 화면 구도와 내러티브를 가진 재현물이 생산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일까. (잠시 한숨이... --:)

남성들이 현재 보고 있는 인터넷의 야동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욕구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성찰적으로 바라 볼 수 있을까. 그저 자위행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나는 저런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둘다 만족할 수 있을까라며 나 스스로의 포르노 비평문을 써 보는 것이다. 보면서 전혀 자신의 욕구와 감정과 생각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면... (잠시 눈물이 --:) 그러나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꿈꾸는 포르노를 요구해보자. 물론 좀 더 여성에게 적대적인 포르노를 상상하는, 내가 바라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그런데 이미 그러한 포르노는 더 이상 나올 것 같지도 않을만큼 요즘의 포르노는 극을 달리고 있는 것 같다). 기존에 '남성일반'으로 포장되어 그저 포르노의 요구에 충실해 보였던 '남성 개인'들이 갖가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포르노의 노예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